

발포 명령·헬기사격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놓쳤다

5·18진상조사위 4년 활동 성과와 남은 과제

신문부 핵심인물 유의미한 진술 확보 못하고 청문회 무산 도청앞 집단발포 조준사격·주남마을 확인사살 증거 확보 최종보고서에 미해결 과제 명시하고 추가 조사 이어가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기간이 끝났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를 출범한 뒤 4년 만이다.

◇**평화·왜곡 바로잡는 성과**=조사위 성과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확인 사살'하고 '조준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꼽힌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에서 계엄군이 버스안으로 진입해 이미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확인사살을 했다는 증언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 4명을 통해 확보했다.

또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계엄군이 M60 기관총과 M16 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

격했다는 증언도 받았다.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과 필름 3600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었다.

사진에는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장갑차(M113)에 설치된 12.7mm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하기 전인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께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21일 오전까지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됐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에 대한 조사도 진일보했다. 조사위는 행방불명자의 행방불명 경위 추적 결과를 담은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었으며, 광주시에 행방불명자로 신고 접수된 242명 신고자 중 14가

족을 제외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채혈을 실시해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5·18민주묘지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5명 중 고(故) 신동남씨와 양창근·김재영군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북한간첩 투입설 등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해 5·18왜곡·평화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했다. 조사위는 간첩 이창용(본명 홍중수)·손성모 사건이 5·18과 무관하다는 근거 확보하고 북한특수군 '광수'로 지목된 이들의 실제 인물을 찾아냈다.

◇**미흡한 진상규명**=5·18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진상규명과 오일 영령들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제 능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상규명 핵심 사안이었던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기존 조사나 발표, 법원 판결 등에서 나아진 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해 가해자를 법정 증인에게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가해자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도 3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1건만 통과되고 2건은 기각돼 무용지물이었다.

5·18 투입 계엄군 2만 317명 중 318명에 대해 진술조사·녹취·녹화를 듣고 1193명에 대해 면담·전화조사를 해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중 유의미한 진술과 증언을 내놓은 것은 246명에 그쳤다.

상향식 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조사 도중 전두환, 노태우 등 핵심인물들이 사망하고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조사위는 신문부 핵심 인물은 73명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객관적 증거보다는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사위는 면담에 응답한 계엄군 대다수가 진술을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유의미한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을 구분하는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핵심 사안 조사·연구 이어져야**=조사위는 26일 이후로 모든 조사활동을 끝내고 6개월 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늘장 조사로 인한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위는 임기 마지막날인 26일까지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6건을 의결했고, 하루 만에 5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 의결했다는 점이다.

5·18연구자들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면 먼저 조사 진척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미해결 과제를 명시하고 후속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가보고서에 어떤 권고사항을 넣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5·18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국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집한 자료들을 5·18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를 5·18 기초 자료로서 대국민 공개하기 위해 분석, 분류, 해제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다.

한 5·18조사위 위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고, 공소시효 지났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며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린이집 원생들 화재대피 훈련 26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태봉어린이집 원생들이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나평주기자mjna@kwangju.co.kr

사기 혐의 수배 전청조 부친 보성서 붙잡혀

여수서도 수천만원 사기행각 추정

전청조씨의 부친이자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창수(60)씨가 보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 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에서 전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경찰에서 신원을 숨겼지만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밝혀냈다.

경찰은 전씨의 행적을 역추적한 결과 지난 22일 순천으로 이동한 후 25일 보성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돈이 없어 인력사무소에 일을 구하려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전씨는 지난 11월께 전남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경찰청은 같은 달 수천만원대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드러나지 않아 한달여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고소인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용의자로 지목하자 경찰은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벌인 서북경찰서에서 공개수배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의 신병을 전남 서북경찰서에 인계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27)씨는 부친과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의혹이 제기된 전 댜댜국가 대표 남현희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흥 지적장애인 성범죄 주민 항소심 가중처벌

광주고법 징역 6개월 늘려 4년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마을주민 10여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4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항소심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 성폭력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8시께 장흥군의

피해자 B(53)씨의 집에서 지적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있어 정신·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고 정신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했다"면서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B씨의 상태를 알았고 B씨를 간음하려 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산구 송정동 음식점 60대 종업원 육류 혼합기 팔 끼여 사망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종업원이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여 과다출혈로 숨졌다.

26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광산구 송정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육류 혼합작업을 하던 종업원 A씨가 기계에 오른팔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정

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 여수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40대 여성 조리사가 음식재료 분쇄기에 팔이 끼여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충훈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